

정례브리핑

2021.3.19(금) 10:30, 차덕철 부대변인(통일부)

3월 19일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부 장관 일정입니다.

오늘 장관님은 특별한 외부일정 없이 부내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보실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일부 차관 일정입니다. 통일부 차관은 오늘 10시 반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참석하실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북한 외무성에서 말레이와 단교 선언하고 미국에 경고하는 성명을 냈는데, 북한 의도에 관해서 어떻게 보... 북한의 담화... 성명 의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일단 북한의 외무성 성명 그리고 관련 기사내용을 보았습니다. 질문해주신 것과 관련해서 일단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의 사법당국의 결정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할 만한 내용은 없고요.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계속 더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입장을 말씀하시기 어렵다면 최근 북한하고 말레이와의 어떤 외교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만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연혁들이나 그것은 제가 해당부서에 조금 확인을 해서 다른 기회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릴 수 있을만한 내용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연결된 건데요. 어찌됐든 말레이 당국하고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하긴 했지만 그 배후로 미국을 지목하면서 미국도 응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북미관계에서 이 문제가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질문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분석과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언급할 만한 내용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블링컨, 오스틴 장관 방한해서 어제 공동성명 이후 기자회견 등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북한의 정권이 자국민을 학살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와 관련해서 통일부의 북한인권 관련된 문제 입장 변화나 이것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해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도, 우리 정부도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 사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번 한미 간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유엔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라고 합의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존중·준수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도 다만 인도주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유엔안보리 결의 내에서도 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통일부 장관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어제 발표된 외교부에서 한미 국장급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통일부가 혹시 입장 있으신가 해서요.

<답변> 일단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답변해드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은 현재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것은 유관부처와 좀 확인을 더 한 다음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문철명 씨요. 기사를 보면 사업가 이렇게 약간 민간인처럼 설명이 되고 있는데, 우리 당국에서 식별할 만한, 식별될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닌 거죠? 이전에 그런 적이 있었나요? 기관 소속이나 이런 식으로.

<답변> 저희가 그 기사 내용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현재 공식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좀 확인해드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끝>